

은행 대출금리 2주만에 0.2~0.3%p ‘깡충’

지표금리 상승 속 대출규제 압박 우대금리 깎여

KB·신한·하나은행 주담대 연 최고 4.52% 수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불과 2주만에 0.3%포인트(p) 안팎이나 뛰는 등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 같은 지표금리가 오르는 데다,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이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금리를 시장

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61~4.52% 수준이다. 이는 2주 전인 이달 3일(2.80~4.30%)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161%포인트, 0.22%포인트 높아진 것

이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82~4.441%에서 3.17~4.67%로 상승했다. 최저, 최고금리가 각 0.35%포인트, 0.229%포인트 오른 셈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7일 현재 3.10~4.18%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3일(3.00~4.05)보다 상·하단이 모두 0.1%포인트 낮지 뒀었다. 이 같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폭은 시장금리 등 조달비용을 반영한 지표금리 상승 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

금리로 주로 코픽스를 활용한다. 코픽스는 쉽게 말해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금리)을 들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고정금리는 주로 은행채 5년물 등 금융채 금리를 지표(기준)로 삼는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이달 3일 1.939%에서 17일 현재 2.029%로 2주일 새 0.09%포인트 높아

졌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 인상은 거의 4배인 0.35%포인트에 이른다. 결국 최근 은행들이 지표금리에 자체 판단으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더 올리거나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였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만큼,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HMM, 운송량 100만TEU 돌파

HMM이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으로 운송한 물량이 100만TEU를 돌파했다. HMM은 지난 3일 부산신항에서 국내 수출 물량 등 화물 2,803TEU를 싣고 떠난 2만4,000TEU급 컨테이너 5호선 ‘HMM 그단스크호’가 21일 중국 연토허에서 만선 출항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운송량이 헤드를 기준 총 101만5,563TEU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단스크호는 다음달 21일 스페인 알헤시라스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의미하는 단위로, 101만5,563TEU의 컨테이너 박스를 일렬로 나열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10회 왕복할 수 있는 약 6,100km에 이른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유럽 노선에 투입된 1호선 알헤시라스호부터 12호선까지 헤드를 기준 총 52항차 중 50항차를 만선 출항했다.

아이오닉5, IDEA 디자인상 금상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2021 IDEA 디자인상’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는 올해 IDEA 디자인상에서 3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자동차·운송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고, 카퍼 디자인 테마가 적용된 제네시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현대 블루링크 앱이 디지털 상호작용 부문에서 각각 ‘파이어리스트’ 상을 받았다. 미국 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상은 ‘iF 디자인상’, ‘레드 닷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파리메트릭 픽셀(이미지 구성 최소 단위인 픽셀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특징인 아이오닉 5는 콘셉트카 ‘45’로도 이미 지난해 IDEA 디자인상에서 자동차·운송 부문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주항공, 소통 프로그램 확대

제주항공이 반복되는 휴직과 원격근무 확대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임직원을 위해 소통·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6일부터 밀레니얼 세대(90년대생)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제주항공 주니어보드 171’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회사 이슈와 조직문화 등과 관련한 주제를 매월 선택해 논의한 뒤 경영진에게 개선평안을 직접 건의한다. 아울러 임직원 간 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펀 데이’(Fun Day) 행사도 진행한다. 각각 다른 부서에 소속된 임직원 4명이 모여 신정을 하면 회사가 공연 관람과 식사 등의 업무 외 활동을 지원하는 식이다.

광주경실련, 주택정책 재검토 토론회

오는 27일...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 주제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지난 2019년 107%를 달성, 10년 후 최소 1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공급 과잉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168만 5,950㎡(51만평) 규모의 산정지구 부지에 1만3,000세대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오는 27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종렬 광주경실련집행위원장이 진행하며, 조진상 광주경실련 정책위원장이자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광주 주택공급 과잉 우려,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꼭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조 교수는 발제문에서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은 그린벨트의 대규모 웨

손과 더불어 다른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막대한 영향일 미침과 더불어 광주 주택정책의 자치분권화에 반하는 사업이다”며 “인구감소·지방소멸시대를 맞은 지금 대규모 주택사업개발 추진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규모 개발이익도 시행사에 독점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주시 주택정책의 큰 흐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주의 전반적인 주택여건에 비춰 볼 때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송봉혁 LH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이상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 윤현석 광주일보 부장, 윤연상 산정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건축사)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제5차 자문위원 회의를 광주하이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제공

광주경총 5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 이하 광주경총)는 최근 제5차 자문위원 회의를 광주하이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회의에서는 경총 사무

국에서 지난 4차 자문위원회의에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 경과보고와 함께 2021년 3분기 주요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요조찬포럼 및 광주

경총 주요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단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한편 광주경총은 현재 매분기마다 자문위원회의를 정례 개최, 사업과 운영진 반에 관한 자료와 함께 자문위원 회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농어촌공사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온라인 학습 활성화 노력 인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비대면 온라인 학습 활성화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 농어촌공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관한 ‘2021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 2013년 첫 인증 이후 세 번째이다. 공사는 앞으로 3년간 ‘Best-HRD’ 인증지로 사용과 함께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인적자원 관리 분야 심사를 통해 우수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심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학습 에듀테크(Edu-tech) 활성화’, ‘신입사원 교육시 체계적인 현장 실무과정·OJT교육 운영’, ‘고졸채용, 지역사회 인재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민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농어촌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 금융기관, 작년 점내·외 ATM기기 감소

전년대비 32대 줄어

지난해 광주지역 금융기관들은 점내·점외 운영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윤관석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 받은 ‘광역시도별 ATM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광주 ATM 총 설치대수는 3,329대로 전년 3,361대보다 32대 줄었다. 이 중 금융기관 점내 ATM은 1,588대로 전년 1,628대보다 40대 줄었고, 점외

ATM도 437대로 전년 439대보다 2대 줄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VAN사)가 운영하는 ATM은 1,304대로 전년 1,294대에 비해 10대 늘었다. 반면 전남지역 금융기관 ATM 대수는 4,636대로 전년 4,603대에 비해 다소 늘었다. 금융기관이 점내에서 운영하는 ATM 대수는 2,694대로 전년 2,724대보다 30대 줄었으나, 점외 ATM대수는 457대로 전년 450대에 비해 7대 늘어났다.

특히 VAN사가 운영하는 ATM은 1,485대로 전년 1,429대에 비해 56대 늘었다. 단위면적(1㎢)당 설치된 ATM 대수를 보면 광주는 6.6대로 서울 34.9대, 부산 9.1대 다음으로 많았고, 전남은 0.4대에 그치며 강원(0.3대)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적었다. VAN사는 카드사와 카드 가맹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객의 카드 사용에 대한 승인을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미애 기자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노부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e)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 주 문의 | 전화 02-426-4266 4월 트러스트 www.edaymail.com 1 문의 | 고객센터 080-80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 동북영점소 (02)552-4307 ● 북부영점소 (02)989-3192 ● 남부영점소 (02)109-4535 ● 관동영점소 (02)293-8888 ● 서부영점소 (02)295-2201 ● 인천영점소 (02)295-4208 ● 광주영점소 (02)594-4901 ● 충청영점소 (042)232-8801 ● 전북영점소 (063)214-5719 ● 전남영점소 (062)844-5001 ● 경북영점소 (053)559-3441 ● 경남영점소 (054)721-6658 ● 광주영점소 (054)721-6331 ● 부산영점소 (051)004-6601